

3월 2일 수행일기



김혜경

부산 주례여중 교장

오랜 교직생활 중 수많은 시간들을 이용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한 인성지도, 생활지도를 하였지만 학생지도에 있어서는 갈수록 어려워짐을 느낀다.

학생들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스스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화두(話頭)에 몰입해 있을 때, 학교로 날아온 교원직무연수 신청서 한 장이 내 삶과 가치관을 바꾸

에 대해 이렇게 알지 못하고 무관심 할 수 있었던가를 느끼며 그 동안 아이들을 향해 인성교육을 부르짖던 교육자로서 말뚱할 화한이 밀려왔다.

'순수는 만상과 통하지 않음이 없다'라는 불법(佛法)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지 못한 나 자신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만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았는지, 바라고 따라주기만을 원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존재와 나'의 재발견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성개발 교육 및 생활 지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우곡선원의 심성개발 직무연수를 마친 후 우리 교원들부터 마음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사회와 학교에 화합하고자 교직에 종사하는 몇몇 불자들이 뜻을 모아 교육지도자 복지모임을 결성하였다. 그 동안 고민하고 갈등

우곡선원 연수, 삶 가치관 바꾸는 계기

불교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 가능성 확인

어준 계기가 되었다.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하고자 계미년 정월 우곡선원의 교원 심성개발 직무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3일간의 짧은 연수였지만 심성개발 교육을 받고 난 후의 내 마음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뒤집혔고 반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교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지만 오로지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내 삶을 좀 더 잘하고 보다는 개인적 삶을 살기 위한 소아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곡선원에서 시행한 교원 심성개발 직무연수는 참가한 첫 날부터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의식 작용의 허구성, 지식과 관념의 실제,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선) 등의 강의 내용을 들으며 점점 내 내부세계를 관조해 나갔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해왔던 인성교육에 대한 올바른 길이 불교 가르침 속에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해매왔던 지난 시간들이 안타깝다. 교원 직무연수 인연으로 시작된 우곡선원의 참선수행을 접한 이후 순수의 힘은 그 어떤 체벌이나 꾸중보다도 더 웅대한 교육의 씨앗이며 포용력임을 깨달아가고 있다. 우곡선원 법회에 나가 들었던 법문 한 구절이 생각난다. '무지(無知도 업(業)이다'

그 동안 나는 시대의 요구와 현실적 교육 방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지은 업은 얼마인가. 또한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얼마나 자만하며 살아왔는가. 이러한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루라도 마음 닦아 가는 수행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책임감이 따른다.

참선수행이 내 가치관과 삶을 바꿔 놓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학교 교육발전과 청소년 인성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확신한다.



◇간경은 부처님 법신과 하나되는 수행법으로 경전의 내용을 마음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3월21일 서울 견지동 보림회강의실의 교육 장면.

읽고 깨달아 실상 바로보기

지극히 독송하면 부처님의 뜻 절로 드러나

"삼독 여의고 진실한 마음 얻기위해 읽어야"

"어디서든지 이 경을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쓰거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마땅히 칠보로써 탑을 쌓되 지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밀 것이요. 또 다시 사리를 봉안하지 말아라. 이 가운데는 이미 여래의 전신(全身)이 있는 까닭이다."

3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견지동 신안빌딩 302호 대한불교보림회의 강의실, 보림회 회장인 성상현(69) 법사가 <법화경> 축포품(瓔珞品)을 강의하는 도중 경전자체가 '법신사리(法身舍利)'임을 거듭 강조한다.

아함경, 능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 7보(寶) 경전을 모두 외워서 해석하는 성상현 법사의 강의는 단순히 경전의 내용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읽고 외운 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 가르침 그대로 행하는 '여설수행(如說修行)'을 강조하는데 있다. 그래서인지 강의도중에 중요한 용어가 나오면 수행과 결부시켜 자세히

설명한다. "묘법연화경의 공수는 상불경보살품에서 나와요. 진실로 자기를 낮추는 상불경보살의 마음으로부터 상(相)을 여인 마음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법화경의 원문을 하나하나 대조해 가며 뜻을 새기는 수강생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연륜만큼이나 다양한 수행을 해 본 이들은 '경전의 왕'이라는 법화경의 깊은 뜻을 절감하고 다시금 발심하는 얼굴빛이 역력하다.

지난해 초 보림회 회원들과 수강생들은 성 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심시일반으로 자체 강의실을 마련했다. 경전의 바른 뜻을 알고 하는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뼈저리게 겪은 수행자들인 만큼 이만한 원력은 당연하다는 반응이었다.

14년 동안 성상현 법사로부터 7보 경전을 차례로 공부한 최기숙(66, 구기동) 보살은 "경전을 오래 수지독송 하다보면 부처님의 깊은 뜻이 저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대한불교 보림회의 '간경'

절로 드러나 수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며 매일 108배, 능엄주력,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보림회 회원들은 최 보살처럼 자기 나름의 방법을 병행하며 간경 수행을 하고 있다. 염불 참선과 함께 3대 방편문의 하나인 간경(纏經)은 단순히 글을 아는데 머물지 않고 생활을 통해 그 말씀이 몸과 마음에 젖어들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이다. 보림회 회원들은 열 가지 간경의 방법을 열거한 <중변(中邊) 무상승품>의 '십종수지(十種受持)' 또는 '십종전통(十種傳通)'의 방편중 한 두 개를 택해 수행하고 있었다.

어떤 회원들은 쓰고 베끼거나 공양하고 법보시를 즐겨 한다. 집에서 스스로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법회에 나와서 다른 이가 읽고 외는 것을 한 마음으로 듣는다. 좀더 공부가 무익은 이들은 경전의 심오한 뜻을 새기고, 아는 만큼만 남에게 설명하기도 한다. 바른 마음으로 듣고 외운 회원들은 조용하게 실상(實相)을 보는 수행을 하고, 지혜가 생길수록 남보르게 뒤아서 익히고 있었다.

회원들은 공부를 할 수록 경전은 단순한 책이 아님을 실감한다. "부처님의 현신(現身)이나 다름없는 경전을 외면하고 어떻게 도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중국 선종의 조조 달마 대사가 <능가경>을 애독했고, 5조 홍인 스님은 <능가경>과 <금강반야경>을 소의로 해서 중풍을 떨쳤으며, 6조 혜능 스님은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이란 경문을 보고 깨친 사실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절감한다.

보림회 실장 이완희(37) 포교사는 "경전을 읽을 때는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을 얻고자 해야지 알음알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 읽어서는 안된다"며 "스스로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三毒)을 버리고 실상(實相)을 찾는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림회 간경법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5분(능엄경), 금요일 오후 2시(법화경) 열린다. (02)739-104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새기고 몸소 실천해 깊은 뜻 스스로 체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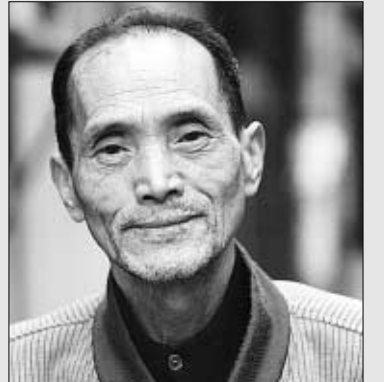
"지식을 쫓아 혈떡이는 마음을 쉬고 '사구계(四句觸)' 하나라도 마음 깊이 새기고 몸소 실천하여 깊은 뜻을 스스로 체득하는 게 참된 간경 수행입니다."

보림회 회장 성상현(69) 법사는 수행을 위한 간경을 특히 '전경(轉經)'이라고 하여 법을 굴린다고 하는데, 경전을 읽고 그 뜻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경을 굴리는 것이 된다고 강조한다.

성 법사는 간경은 경전을 읽고, 듣고, 옮겨 쓰는 등 여러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두루 익힘으로써, 오직 자신의 성품 즉 실상(實相)을 밝히는 길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성 법사는 선종의 오래된 '불림문자'의 풍토와 관련, "경전을 읽는다는 것은 지금 부처님을 친견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 어찌 허물이 되겠는가"라며 "허물이 있다면 학인이 지혜롭게 보지 않고 생각으로 분별하고 지시 쌓기에만 급급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병무청에서 근무하던 성 법사는 40대 초반, 원인모를 병에 걸려 죽을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한 스님이 건네준 금강경을 보고 외운 후 경전을 공부하게 됐다. 이후 불과 몇년만에 7보 경전을 모두 암송할 정도로 경에 통달한 성 법사는 25년 동안 스님과 재가자를 위해 경전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림회 성상현 회장

수행 캘린더

■삼보회 경전강좌=서울 삼보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경전 강의를 한다. 첫째 일요일 법구경(박경준 동국대 교수), 둘째 일요일 화엄경 십지품(종범 스님), 셋째 일요일 말마대사의 이인사행론(송찬우 중앙승가대 교수), 넷째 일요일 사십이장경(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 (02)913-2859

■아비담마 특강=초기불전연구원은 4월 29일부터 7월 15일까지 매주 화 오후 7시-8시30분 근본도량인 서울 총재1동 수미정사에서 '아비담마 길라잡이 특강법회'를 연다. 4월 29일 초기불교개설(14성제를 중심으로), 5월 6일 초기불교개설2(37조도품을 중심으로), (02)391-8579

■심념처(心念處) 수행=서울 강남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시-5시 30분 마음을 알

아차리는 '심념처(心念處)' 수행을 한다. (02)3462-4932

■초발심자경은 강좌=광주 광복사는 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12시 <초발심자경론>을 중심으로 불교적 체계적 이해를 돕는 강의를 연다. 광복사는 매주 금 오전 10시(초급), 매주 금 오후 7시(중급), 매주 토 오전 10시 및 오후 6시(중급)에 위빠사나 강좌도 연다. (06)2222-7801

■아함경 읽기=현대불교사회문

회원은 매달 들, 넷째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603호에서 '아함경 읽기' 무료 강의를 연다. 강사는 김응준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02)736-6940

■관(觀) 수련회=경북 영양 연화사는 4월 19-25일(6박7일), 5월 3-7일 '관(觀) 수련회'를 연다. 정기 주말 수련회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열린다. (054)682-7770

■아비라기도=경남 산청 길상선사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일요일 오전 10시(아비라 20회 독송),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8시-일요일 오전 8시(아비라 8회), 매월 넷째 토요일 오후 8시-일요일 오전 8시(아비라 8회)에 아비라 기도법회를 갖는다. (055)973-6861

■경주 남산 구도순례=서울 향천선원은 4월 26-27일 경주 남산 칠불암에서 부처님까지 명상처를 찾아 수행정진하는 구도순례를 병행한다. (02)2254-3171

大韓佛敎全國山岳人聯合會 임원 초빙 공고

조직 확대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신심 깊은 인사(남, 녀)를 임원으로 초빙합니다.

●부총재 : 0명 ●이사 : 00명

1. 연혁

본 연합회는 1997년 6월 1일 속리산 범주사에서 宋月珠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창립대법회를 봉행한 바 있고, 동년 10월 3일 개천절에 경북 안동에 있는 약산 흥은사(본회 지정수행도량)에서 3,000여명의 회원이 모여 총 발대식을 봉행하였습니다.

2. 사업목적

본 연합회는 종단과 종파,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성지순례를 통한 산림법회, 자연환경 보호는 물론 불교문화 창달과 보전을 목적으로 창립된 순수 산행 불교단체입니다.

3. 연합회 구성

顧問
김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 당연직)
송월주 (前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이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스님)
이흥파 (관음종 총무원장 스님)
서돈각 (대한불교진흥회 이사장)
박봉식 (前 서울대학교 총장, 現 금강불교대학교 총장)
송석구 (前 동국대학교 총장)
정인익 (前 연합회 총재, (주)남양회장)

諮問委員 세계언론사 대표 위촉
名譽總裁 손현수 (경영학 박사, 대한그룹 회장)
總裁 김정길 ((주)삼원개발 회장)
副總裁 한계수 外 수명
監事 이돈중
理事 姜봉수 外 수명
事務總長 김대원

- 支會 및 단위 산악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지회와 40여 단위 산악회 활동 중

- 현 정회원 : 약 3만여명

※ 향후 수십여만명의 회원확대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중앙산도회관 4층 전화 02)735-1108, 011-9739-9505. 팩스 733-7278

大韓佛敎全國山岳人聯合會 總裁 金正吉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 발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하여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